

이슈 브리핑

● 이슈 요약

- ◆ 중국 정부,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
‘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방안(~2026년)’ 발표
- ◆ 중국 보험업계, 중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 이후 보험금
청구율 증가·고가 부품 수리에 따른 손실 심화
- ◆ Xiaomi,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 안전성 논란이 발생한
전기차 대표 모델 SU7 11.7만대 리콜
- ◆ Nissan, 비용 절감 달성을 위해 중국산 부품 채택 확대,
부품 종류 축소, 물류 최적화 추진 등을 검토
- ◆ Toyota, 미래 모빌리티 기술 실증을 위한 스마트 시티
‘Woven City’ 일부 가동 시작
- ◆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, 환경보호청(EPA)에 전임 바이든
행정부의 전기차 전환·배출량 감축 규제 완화 요청

◆ 중국 정부, '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방안' 발표

- 중국 정부는 수요 감소, 가격경쟁 심화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'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방안(2025-2026년)' 발표
 - * 汽车行业稳增长工作方案 (2025—2026年), 산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
- 계획(안)은 '25년 신차 판매 3,230만대(전년比 +3%), 신에너지차 판매 1,550만대(+20%), 車 제조업 부가가치(+6%) 성장 등을 목표로 제시
- 관련하여 내수 확대, 품질 개선, 산업 환경 최적화, 개방 협력 등 4대 영역에서 60여 개 세부 정책이 제시되었으며, 구매세 감면·노후차 교체 지원, NEV 전환 시범사업 및 농촌 보급, 핵심기술 개발 등이 포함

MIIT('25.9.12.) <https://bit.ly/4nOcwRH>

CSF('25.9.16.) <https://bit.ly/46y6wWY>

◆ 중국 보험업계, 전기차 보급 확대 영향으로 관련 손실 지속

- 중국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율이 내연차 대비 2배 높고 고가의 배터리·부품 수리비가 요구되는 전기차 보험 부문에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
 - * '24년 관련 부문에서 57억 위안(약 1.11조 원) 적자 기록
- 전기차 배터리의 취약성과 특정 브랜드 전용 정비소 의존 등의 문제로 수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은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
- 한편 전기차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, 중국 정부는 '25.1월 보험 가입 보장 플랫폼 도입 및 수리비 인하 권고 등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

Bloomberg('25.9.22.) <https://bit.ly/46iKh7N>

The Business Times('25.9.22.) <https://bit.ly/4gFAn3x>

◆ Xiaomi,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전기차 SU7 11.7만 대 리콜 실시

- Xiaomi는 '25.3월 고속도로 운행 도중 사고로 안전성 논란을 촉발한 자사 전기차 SU7 스탠다드 모델 116,887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
 - * 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(SAMR)은 SU7의 Lv.2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특정 시나리오에서 사물 인식 및 경고가 불가할 수 있음을 공표
- 동사는 '27년 시행될 중국의 Lv.2 운전자 지원 시스템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, OTA(Over-the-air)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

CnEVPost('25.9.19.) <https://bit.ly/4gHRcuO>

Carscoops('25.9.22) <https://bit.ly/4gFqDWY>

◆ Nissan,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산 부품 확대·물류 최적화 등 추진

- 최근 차량 판매 부진 및 적자에 직면한 Nissan은 비용 절감*을 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부품 채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
- * '27.3월까지 '24년 회계연도 대비 차량 생산 변동비 약 2,500억 엔 절감 목표
- 동사는 중국산 부품 조달 기준을 완화하고 부품 종류의 70%를 줄이며, 일본 공급업체들이 중국 제조업체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할 계획
-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간소화해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, 중국 협력사의 해외 네트워크(헝가리, 모로코, 터키 등)를 활용해 물류비 절감 예정

Digitimes Asia('25.9.18.) <https://bit.ly/4mwdFMH> Automotive News('25.9.17.) <https://bit.ly/4nJ7Kou>

◆ Toyota, 미래 모빌리티 기술 실증 도시 'Woven City' 일부 가동

- Toyota는 자율주행·AI·로보틱스 등을 실 생활 환경에 접목한 스마트 시티인 'Woven City'*를 '25.9.25. 일부 가동 시작
- Toyota 계열사 포함 총 19개사가 참여해, 전체 70.8만㎡ 부지 중 지상(자율주행 전용도로) 4.7만㎡, 지하(물류 공간) 2.5만㎡를 우선 개방하며, 동사 관계자 중심으로 약 360명이 거주 예정
- 동사는 자율주행 전기차 L4 기술 실증, 교통환경-차량 통합 실험, 지하 물류망 기반 로봇 배송, PM(Personal Mobility) 전용도로 운영 등 추진

Nikkei('25.9.20.) <https://bit.ly/3lz3UPF> Automotive News('25.9.22) <https://bit.ly/4pAPPSC>

◆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, 환경보호청(EPA)에 배출가스 규제 완화 요청

- 미국 자동차혁신연합(AAI)은 환경보호청(EPA)에 '30~'32년 신차 판매 35~56% 전기차 전환, '32년까지 '27년 대비 차량 배출가스 약 50% 감축을 목표로 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
- 업계는 수요 정체, 충전 인프라, 공급망, 경제성 등 각종 제약과 전기차 세액공제 일몰 등 정책 변화로 기존 목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
- 한편 EPA는 '25.7월, 배출가스 규제 법적 근거 철회를 제안한 바 있으나, 일부 민주당 의원 및 환경 단체가 기존 목표 유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

Automotive News('25.9.24.) <https://bit.ly/427hOKL> EPA('25.7.29.) <https://bit.ly/4plldP3>